

해방기에 출간된 <小波童話讀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Sopa's Fairy Tale Book* Published during Liberation Period

진 나 영 (Jin, Na-Yo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소파동화독본>의 내용 분석 |
| 2. <소파동화독본>의 발행 및 현전본 | 5. 결 론 |
| 3. <소파동화독본>의 체재 분석 | <참고문헌> |

<초 목>

본 연구는 해방기에 출간된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를 대상으로 당시 출판, 현전본의 현황, 체재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소파동화독본>의 발행을 비롯한 체재, 형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아동문화 구축에 힘쓴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은 평생 어린이를 위해 방정환의 아동문학 작품 중 36편을 선별하여 <소파동화독본> 전5권으로 구성하여 발행했다. <소파동화독본> 현전본의 수량이 많지 않으나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앞표지-목차 및 속지-본문-판권기-뒤표지의 체재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본문은 방정환의 글에 5권 각기 다른 화가(김의환, 정현웅, 윤희순, 김규택, 한홍택)의 삽화를 넣어 선구적인 출판기획으로 평가받았다. 내용 분석 결과,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의 동화를 문학형식별로 구분하면 크게 변안·전래·창작동화로 나눌 수 있으며, 변안동화 18편, 전래동화 14편, 창작동화 4편으로 변안 및 전래동화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소파동화독본>의 동화는 방정환의 유일한 단행본 『사랑의 선물』(1922)과 방정환의 활약이 컸던 잡지 <어린이>(1923-29)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들로, 각각 8편, 28편이 이에 해당됨을 확인되었다.

要語: 소파, 방정환, 소파동화독본, 조선아동문화협회, 아협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of the publication at the time, the currently handed-down versions, form and contents of the *Sopa's Fairy Tale Book* series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f the country. By doing so, the study conducted an in-depth examination on its publication, structure, form and contents. Joseon Children Culture Association (Ahyeop), which tried hard to establish children's culture, selected 36 pieces from the work of children's literature of Bang Jeong-Hwan who devoted his whole life for children, and published totally five volumes of *Sopa's Fairy Tale Book*. Though the number of its currently handed-down versions is not many, the study,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m, found *Sopa's Fairy Tale Book* had the same formation of 'front cover-table of contents, title page-main text-back cover'. The main text was inserted with illustrations from each different artists (Kim Eu-Hwan, Jeong Hyun-Ung, Yoon Hee-Sun, Kim Gyu-Taek, Han Hong-Taek) for Bang Jeong-Hwan's stories, giving it a credit as a pioneering public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36 children's stories were divided into adaptations, passed-down traditional stories and originals by and large based on literary form. It was composed of 18 adapted stories, 14 traditional ones, 4 originals, showing the high proportion of adapted and traditional stor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fairy tales of *Sopa's Fairy Tale Book* were those already published at his only and single book of *A Gift of Love* (1922) and at Magazine *Children* (1923-29) in which he had much activity. It was identified as eight and 28 pieces respectively.

Key words: Sopa, Bang Jeong-Hwan, *Sopa's Fairy Tale Book*, Joseon Children Culture Association, Ahyeop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전담교수(jny415@naver.com)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269-296,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269>

1. 서론

小波 방정환은 아동문학의 보급을 위한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로서,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문화 운동의 창시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20~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운동과 아동운동을 통해 당시 천대받고 업신여겨지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방정환은 어린이들이 처했던 시대·사회적 환경이 참혹하고 비참함을 깨닫고, 어린이들에게도 인격을 부여하고, 인격체로서 격상시키는 일에 뜻을 두었다. 이러한 뜻을 펼치기 위해 방정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인 『사랑의 선물』과 잡지 <어린이>를 발행하였다. 이들 도서의 발행 동기는 영리적인 목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국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교양과 민족적 주체 의식을 심어주려는 데에 있었다.¹⁾

조선아동문화협회(약칭 아협)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에 창업한 을유문화사의 병설 단체였다. 초창기 을유문화사의 출판활동은 학술 및 교양도서, 아동도서의 발행을 주로 하였는데, 그 중 아동도서 발행은 아협이 담당하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아협은 일제강점기에 언어 및 사상 등을 억압당해 어린이의 교육과 문화가 열악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민족문화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어린이 문화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협은 어린이에게 우리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책을 출판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어린이 노래 보급 및 글짓기 현상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²⁾ 또한 각종 아동도서와 잡지 간행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협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도서를 출간함에 있어 어린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이야기 글과 함께 그림을 곁들인 도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했다. 1946년에 아협은 <아협 그림애기책>, <소파동화독본> 등을 출간하였는데, 그 중 <소파동화독본>은 우리나라 어린이문화 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한 방정환의 동화작품을 모아 출간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해방 최초로 출간된 ‘아동물 개인 전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갖는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방정환 개인 혹은 방정환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 국어국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의 작품 중 하나로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서지학적으로 깊이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파동화독본>은 해방 직후에 출간되어 해방기 출판문화에 대해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문학 보급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진 방정환과 아협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방정환의 동화를 모아 아협에서 출간한 <소파동화독본>을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6년 아협이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인 방정환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그림을 곁들인 <소파동화독본> 5권의 발행과 현전본의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현전본 <소파동화독본> 5권을 대상으로 책을 구성하는 체제를 분석을 통해 당시 출판 형태 및 형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정경자, “소파 방정환 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10.

2)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오십년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7), 46-47.

또한 내용적으로는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동화 36편을 문학형식별로 구분하고, 각 작품별 출처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각 동화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방정환 저작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전본 <소파동화독본> 제4권에 교정 표시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맞춤법과 비교분석을 하여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소파동화독본>의 발행 및 현전본

2.1 아협과 <소파동화독본>의 발행

5권으로 구성된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발행한 소파 방정환의 작품을 모은 출판물이다. 우리나라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1일에 창업한 을유문화사는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술 및 교양도서 등을 출판하였는데, 특히 아협을 함께 운영하면서 아동도서의 발행 또한 병행하였다. 『을유문화사 50년사』에 수록된 도서발행목록을 살펴보면 해방 후 아동도서의 출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아협의 아동문학과 아동도서 출판 사업은 해방 전부터 계속되어온 방정환의 아동문학 보급 및 아동보호운동과 그 취지를 동일시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한글로 된 새로운 출판물을 펴내기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협은 책을 출판하고자 했으나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존재했던 저명 인사의 舊稿를 다듬는 방식으로 아동도서를 출간했다.³⁾ 이러한 연유로,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아협이 방정환의 동화를 모아 <소파동화독본>을 출간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을유문화사는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출판목표에 따라 병설단체인 아협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 출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⁴⁾ 아협은 각종 기념음악회를 개최, 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웅변대회, 글짓기 공모 등 문화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방 후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아협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와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처음으로 발간한 도서는 『가정글씨체첩』, 『어린이글씨체첩』으로, 우리말을 모르는 어린이를 위해 한글 표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어린이 잡지로는 <주간 소학생>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해방 후 최초로 발간된 어린이 주간지로서 의미가 있다. <주간 소학생>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발간된 잡지로,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잡지 구성에 있어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렇듯 <주간 소학생>은 신인 작가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잡지를 통해 이름을 알린 작가와 삽화가가 많았다. 책이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연재하는 형식은 당시 어린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까닭으로, 아협에서는 특히 관심을 받은 작품들을

3) 을유문화사(1997), 42.

4) 정진숙, 『출판인 정진숙』 (서울: 을유문화사, 2007), 104.

선별하여 삽화가 있는 아동도서 단행본으로 계속적으로 출간했다.

1946년에는 아협 출간 도서 중 ‘시리즈물’이 많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협은 <그림동산> 시리즈,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아협 어린이 壁圖> 시리즈 및 <소파동화독본> 시리즈 등 다양한 시리즈물을 발행했다. <그림동산> 시리즈는 제1집 『어린이 한글책』을 시작으로 출판되었는데, 우리말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을 중심으로 엮은 일종의 한글사전이었다.⁵⁾ <아협 어린이 벽도> 시리즈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전지 크기의 낱장 패도로서 가정이나 학교 교실의 벽에 걸어놓고 빠르고 재미있게 지리나 문자를 익힐 수 있게 제작하였다.⁶⁾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또한 3년에 걸쳐 이야기와 삽화로 구성된 『홍부와 놀부』, 『손오공』, 『보물섬』, 『린큰』 등 10여 권이 기획적으로 출간되었다.

아협에서 출간한 아동도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1946년에 11월에 5권이 동시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소파동화독본> 시리즈가 있었다.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A5판형 70면 안팎의 반양장본으로 물리적 형태가 동일하며, 내용은 소파 방정환이 1920년대에 발표한 저작 36편을 모아 총5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마다 삽화가를 달리하여 그림을 곁들여 출간했으며 이는 <소파동화독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동문학에 큰 관심이 없던 당시에 아협에서 심혈을 기울인 <소파동화독본>은 선구적인 출판기획으로서 평가받고 있다.⁷⁾ 그리고 해방 최초로 출간된 ‘아동물 개인 전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⁸⁾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을유문화사 오십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 따르면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출간하였다고 했다. 이들 책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을유문화사 오십년사』 발행도서목록에 기재된 <소파동화독본> 시리즈

권차	대표표제	저자	삽화가	발행연월
1	까치웃	방정환 作	김의환 畵	1946년 11월
2	울지 않는 종		정현웅 畵	
3	나비의 꿈		윤희순 畵	
4	귀먹은 집오리		김규택 畵	
5	황금거위		한홍택 畵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1946년 11월 『까치웃』, 『울지 않는 종』, 『나비의 꿈』, 『귀먹은 집오리』, 『황금거위』 등 5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은 방정환의 글에 김의환, 정현웅, 윤희순, 김규택, 한홍택 등 화가들의 삽화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내용은 현재 을유문화사

5) 을유문화사(1997), 42.

6) 을유문화사(1997), 45.

7) 을유문화사(1997), 52.

8) 정진숙(2007), 108.

홈페이지⁹⁾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서비스 중이다.

2.2 <소파동화독본>의 현전본 현황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제1권부터 제5권까지 1946년에 동시에 발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을유문화사 창립자 중 하나인 정진숙 또한 <소파동화독본>은 1946년 11월에 전5권짜리로 출간되었다고 기술했다.¹⁰⁾ 이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본 <소파동화독본> 시리즈 5권에 대한 현전 여부 및 도서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의 현전본 현황¹¹⁾

권차	서명	발행연월일	판본	소장처
1	까치웃	1946년 12월 15일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	울지 않는 중	1947년 05월 10일	-	개인 소장
3	나비의 꿈	1947년 06월 01일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	귀먹은 집오리	1949년 03월 20일	再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	황금거위	1948년 11월 20일	-	을유문화사

<소파동화독본> 시리즈 중 현전하고 있는 도서의 수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권별 현전본을 도서관, 박물관, 출판사에 의뢰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의 발행연도가 1946년이 아닌 각 권마다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의 현전본은 1946~1949년, 즉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권 『까치웃』은 1946년, 제2권 『울지 않는 중』과 제3권 『나비의 꿈』은 1947년으로 발행연도는 동일하나 발행일이 각각 달랐고, 제4권 『귀먹은 집오리』는 1949년으로 발행연도가 늦으며 판사항 또한 再版으로 다른 권차의 도서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이는 다른 권차의 도서와 마찬가지로 제4권 『귀먹은 집오리』 초판의 발행연도가 1946~1947년에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5권 『황금거위』의 발행연도가 1948년이었으며, 각 권마다 발행연월일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전본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 <소파동화독본>의 발행이 1946년 11월에 일괄 이루어

9) 을유문화사 홈페이지

<http://www.eulyoo.co.kr/book/search.php?sch_txt=%EC%86%8C%ED%8C%8C%EB%8F%99%ED%99%94%EB%8F%85%EB%B3%B8>. [접속일 2019.10.15.]

10) 정진숙(2007), 108.

11) 본 논문에 수록한 현전본 사진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1권, 3권, 4권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소장본이고, 제2권은 정지석·오영식 저술 『틀을 돌파하는 미술』(서울: 소명출판, 2015)에 수록된 사진 및 개인소장자로부터 받은 자료들이다. 제5권은 을유문화사에 직접 열람할 것을 문의하였으나 책의 상태가 좋지 못한 관계로 불가했다. 대신 을유문화사에서 서비스 중인 네이버 포스트 중 “을유문화사에 남겨진 소파 방정환의 흔적”(<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61826&memberNo=20168227&vType=VERTICAL>)[접속일 2019.10.23.]에 제공된 자료를 수록하였다.

졌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현전본의 발행연월일을 통해 1940년대 후반까지는 <소파동화독본>이 계속적으로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을유문화사 창립자인 정진숙의 『출판인 정진숙』에 따르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어린이 도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한 기록이 있는데, <소파동화독본>이 1946년부터 1950년 전쟁 발발 전까지 출간되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의 현전본 수량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해당 도서의 발행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전쟁으로 인해 해당 도서들이 산일되었거나 발행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을유문화사 발행도서목록에 의하면 전쟁 이후에 을유문화사는 1962년 8월이 되어서야 총서 <한국아동문학독본> 중 제1권으로서 『방정환 아동문학독본』을 출간했다.¹²⁾

3. <소파동화독본>의 체제 분석

해방기에 간행된 <소파동화독본>은 총 5책으로 구성된 시리즈로서, 아협에서 1946년에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존하는 책들의 출판사향을 보면 출판연월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전본을 대상으로 체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소파동화독본> 5권의 체제는 대체로 앞표지-목차-본문-판권기-뒤표지의 순서로,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3.1 앞표지

앞표지는 반양장본으로 약간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으며, 크기는 A5판형이었다. 각 권의 앞표지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파동화독본>의 앞표지

12) 을유문화사(1997), 418.

앞표지는 5권의 체제가 거의 유사하였다. 가장 위에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소파동화독본>을 발행한 아협의 상징문양이 있고,¹³⁾ 그 아래에는 ‘小波童話讀本’을 나타냈다.



<그림 2> 조선아동문화협회 상징문양

그 아래에는 <소파동화독본>의 권차를 흰색 글씨로 기재했으며, 그 아래에는 가장 큰 크기의 활자로 각 권의 표제를 배치했다. 표제 밑에는 표제의 내용과 관련 있고 본문에 여러 삽화 중 대표적인 그림을 배치하였다. 삽화 아래에는 흰색 글씨로 ‘兒協童話研究所編’이라 하여 아협동화연구소에서 본 책을 엮었다는 것을 기재했다. 또한 가장 아래에는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을 두어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본 책을 발행한 사실을 알렸다. 다만 제4권의 경우는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대신 약칭인 ‘兒協發行’으로 기재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각 권의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연월일을 조사·정리했다.

<표 3> 권차별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연월일

권차	발행연월일	발행소
제1권	1946년 12월 15일 발행	朝鮮兒童文化協會
제2권	1947년 05월 10일 발행	朝鮮兒童文化協會
제3권	1947년 06월 01일 발행	朝鮮兒童文化協會
제4권	4292(1949)년 03월 20일 再版	아협 (4280년09월20일등록249호)
제5권	4291(1948)년 11월 20일	兒協 (4280년09월20일등록249호)

각 권의 발행연월일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로 다양하나 제4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 점은 ‘再版’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초판의 <소파동화독본>에서는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이라고 기재했으나 재판으로 인쇄되면서 앞표지의 체제 중 해당부분이 ‘兒協發行’으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표지 바로 뒷면에는 <소파동화독본>의 저자 겸 번안자인 소파 방정환의 초상과 간략한 소개를 반 페이지에 걸쳐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소파 선생이 어린이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고, ‘어린이’라는

13)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2009),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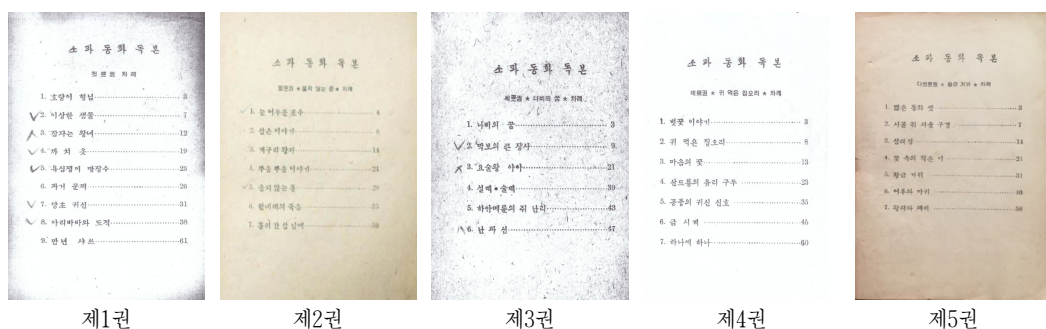
단어와 어린이날을 만드셨으며, 본 책에서는 소파 선생의 이야기를 추림으로써 사랑의 자세와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해당면의 나머지 부분에는 ‘소파 선생의 당부’의 내용을 큰 활자로 기재함으로써,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다.



<그림 3> <소파동화독본>의 앞표지 뒷면

3.2 목차 및 屬紙

목차 페이지는 5권 모두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명 아래에는 권차와 각 권별 대표 표제를 기재했는데, 제1권에는 대표 표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제2-5권은 체제가 같은 것으로 보아 <소파동화독본> 시리즈 중에 가장 처음 발행된 제1권 이후에 목차에 대한 체제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그림 4>는 각 권의 목차 체제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4> <소파동화독본>의 목차

각 권은 단편 동화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편의 동화를 모아 간행되었다. 목차에 따르면 제1권은 9편, 제2권은 7편, 제3권은 6편, 제4권은 7편, 제5권은 7편의 동화를 모아 엮었다.

목차 다음에는 속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 권의 동화 안에 삽화를 그린 화가의 이름을 나타냈다. <소파동화독본>과 유사하게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아협에서 발간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경우는 김용환·김의환·정현웅 등 3명의 화가가 약 10종의 책을 나누어 삽화를 그린 반면,¹⁴⁾ <소파동화독본>은 각 권마다 각기 다른 화가가 삽화를 그렸는데, 이 점은 <소파동화독본>만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각 권의 해당 속지와 화가의 그림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소파동화독본>의 속지 및 화가별 삽화

<소파동화독본>의 제1권은 김의환의 삽화를 넣었다. 김의환은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나 형 김용환과 함께 일본에서 유학하며 미술교육을 받았다. 해방 후에 귀국하여 대표적인 1세대 만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아협에서 출간한 어린이 그림책에 김의환의 삽화가 실렸다. 당시 김의환의 삽화가 만화적이고 해학적인 기법을 채용한 것이 화제로 오르며, 한동안 책들의 판매가 잘 되었다고 전해진다.¹⁵⁾ 제2권은 해당 속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을유문화사

14) 진나영, “해방기 출간 <아협 그림애기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9권 제4호(2018. 12), 408.
15) 정진숙(2007), 109.

발행도서목록 및 기타 자료에 따르면 정현웅의 삽화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웅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잇달아 입선하며 1943년까지 13회에 걸쳐 작품 18점이 입선 및 특선을 하며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또한 각종 신문과 잡지에 여러 문인의 작품 등 수많은 삽화와 표지화 및 어린이 만화, 시사만화를 그리며 한국현대만화의 선구자로 일컬어졌다.¹⁶⁾

제3권은 尹喜淳의 삽화로 구성되었다. 190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윤희순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며 미술을 공부하여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했다. 해방 후에는 조선미술동맹 위원장 및 미술평론부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1947년 5월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조선미술사연구』 등이 있으며 많은 평론을 썼다.¹⁷⁾ 윤희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소파동화독본> 제3권의 삽화를 그렸으므로 1947년 5월 전에는 이 도서의 출간 계획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제4권은 金奎澤의 삽화이며, 그는 1933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有情」의 삽화를 비롯하여 홍명희의 「임격정」, 한용운의 「삼국지」 등 많은 문인들의 삽화를 그렸다. 해방 후에도 <조선일보>에 시사만평을 발표했으며, 염상섭의 「난류」, 김영수의 「빙하」 등에도 삽화를 그렸다. 제5권의 삽화는 韓弘澤의 작품으로, 1916년 출생하여 일본 유학을 하다가 귀국하여 1939~1944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해마다 입선하여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1940년에는 제약회사 유한양행에 입사하여 각종 상품의 도안을 그리며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다졌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여러 동료들과 조선산업미술협회를 창립하여 산업미술 개척에 앞장섰다.¹⁸⁾

이들 삽화가들의 이력을 정리해보면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할 정도의 실력파들이었다. 이들은 유명 작가의 글이나 회사 제품을 위해 삽화를 그렸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소파 방정환의 글에 당대 실력이 높은 화가 5명의 그림을 실었다는 점만으로도 <소파동화독본>의 가치는 높다고 여겨진다.

3.3 본문

<소파동화독본>의 본문은 방정환의 저작 여러 편을 모아 간행되었다. 그 구성은 각 권마다 다른데, 제1권은 9편, 제2권은 7편, 제3권은 6편, 제4권은 7편, 제5권은 7편의 동화를 모아 엮었다. 각 권의 수록된 동화의 서명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정현웅&ridx=0&tot=54>>. [접속일 2019.10.7.]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尹喜淳&ridx=0&tot=840>>. [접속일 201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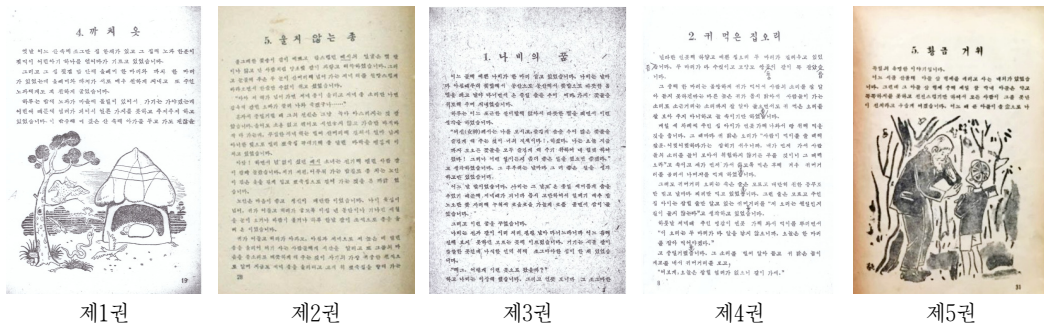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김규택&ridx=0&tot=>>>. [접속일 2019.10.7.]

<표 4> <소파동화독본> 각 권의 수록된 동화

순번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1	호랑이 형님	눈 어두운 포수	나비의 꿈	벚꽃 이야기	짧은 동화 셋
2	이상한 샘물	삼손 이야기	막보의 큰 장사	귀 먹은 집오리	시골 쥐 서울 구경
3	잠자는 왕녀	개구리 왕자	요술왕 아아	마음의 꽃	삼태성
4	까치 옷	뽕웁뽕웁 이야기	설떡·술떡	산드룡의 유리구두	꽃 속의 작은 이
5	욕심쟁이 땅장수	울지 않는 종	하야메론의 쥐 난리	공중의 귀신 신호	황금 거위
6	과거 문제	한네레의 죽음	난파선	금시계	어부와 마귀
7	양초 귀신	홀러 간 삼남매		하나에 하나	왕자와 제비
8	아리바바와 도적				
9	만년 샤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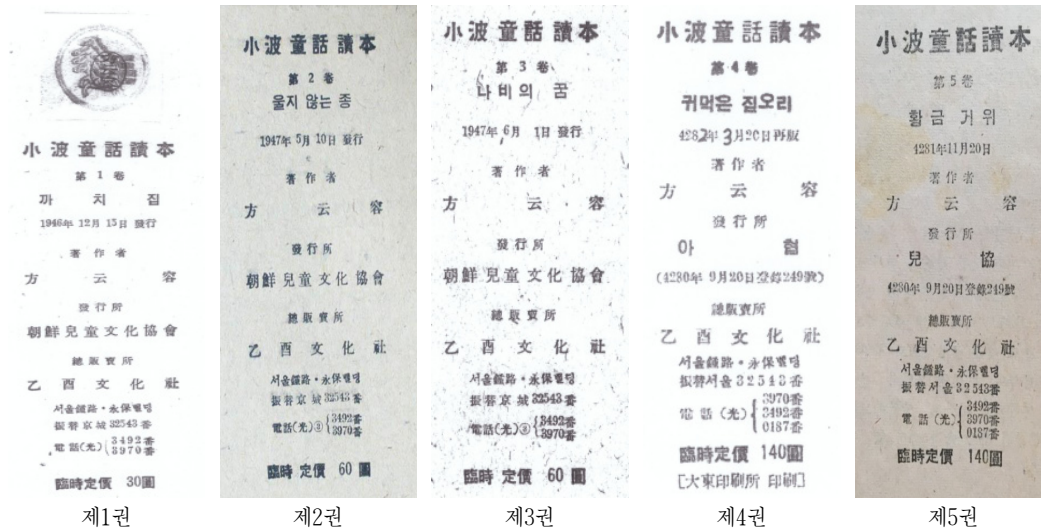
위의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파동화독본>은 각 권마다 동일한 편수의 동화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수록된 동화는 모두 방정환 선생의 창작동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정환 선생이 외국작품을 번안한 동화도 모은 것이었다. 또한 본문의 동화는 삽화를 넣었는데 어린이 독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돋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권의 대표표제로 기재된 동화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음 <그림 6>으로 정리했다.



<그림 6> <소파동화독본> 각 권의 대표 동화

3.4 판권기

<소파동화독본>의 각 권 본문 뒤에는 판권기가 있어 발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출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7>은 각 권의 판권기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 <소파동화독본> 각 권의 판권기

판권기에는 ‘小波童話讀本’이라는 총서명 아래에 각 권수와 권제명을 기입했다. 그 아래에는 발행 연월일을 기재했고, 그 다음에는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넣었다. 저작자는 5권 모두 방운용(方云容; 방정환의 아들)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저작자로 방정환 대신 방운용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1931년 방정환 선생이 별세한 후 아들 방운용이 방정환 작품들의 저작권자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으로는 발행소가 제1-3권까지는 ‘朝鮮兒童文化協會’의 이름으로, 제4권은 ‘아협’, 제5권은 ‘兒協’으로 표시됐다.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의 약칭으로서 동일한 단체를 의미하지만 표현이 달리된 이유는 각 권의 발행연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제1-3권까지는 1946~1947년에 발행된 것으로 ‘朝鮮兒童文化協會’의 명칭을 사용했고, 제5권은 1948년 발행으로 ‘兒協’을, 제4권은 1949년 발행으로 ‘아협’으로서 각기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는 총판매소를 기재했는데 5권 모두 ‘乙酉文化社’로 표시했다. 을유문화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나타냈고, 가장 마지막에는 임시정가를 기재했다. 1946년에 발행된 제1권은 30원, 1947년에 발행된 제2, 3권은 각각 60원, 1948~1949년에 발행된 제4, 5권은 각각 140원으로 나타났다. 5권은 각 7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다른 것은 해방 후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의 영향과 당시 인쇄용지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¹⁹⁾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권기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제1권과 제4권이였다. 제1권은 판권기의 가장 위에 ‘方云容’이라고 날인된 것과 말 4마리가 그려진 마패 모양의 印紙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것은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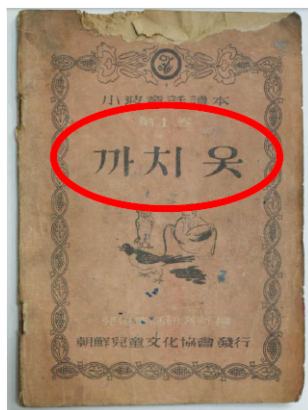
19)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산업사』 (경기: 한울아카데미, 2012),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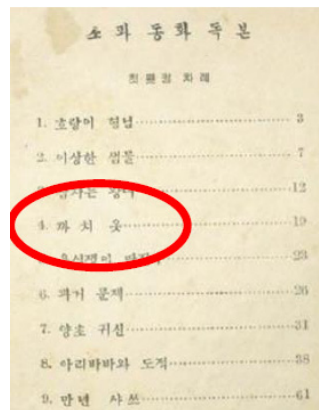
<그림 8> 제1권 판권기 중 印紙

본 인지는 을유문화사에서 당시에 많이 사용한 모양의 것이며, 그 안쪽의 ‘方容云’의 도장은 저작권자였던 방정환 선생의 아들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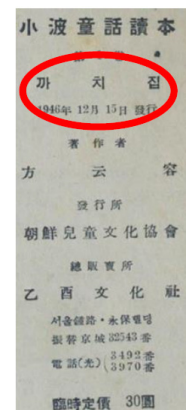
또한 특이한 점은 제1권 앞표지와 목차의 표제는 ‘까치웃’이었는데 판권기에는 ‘까치집’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는 다음 <그림 9>에 정리했다.



앞표지



목차



판권기

<그림 9> 제1권 앞표지·목차·판권기에 나타난 표제

위의 <그림 9>와 같이 앞표지, 목차, 판권기에 기재된 표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세 부분 중 앞표지, 목차는 ‘까치웃’으로 동일하고 방정환 선생의 저작 또한 『까치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판권기의 ‘까치집’은 마지막 글자가 원래는 ‘웃’이지만 誤字로서 ‘집’으로 표시되었다고 파악됐다.

제4권에서 다른 점은 임시정가 아래에 ‘大東印刷所 印刷’을 각괄호에 넣어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기가 제4권에만 있는 이유는 정확한 사항은 관련 근거의 부족으로 알기 어렵지만 5권 중 가장 늦은 1949년에 발행돼 인쇄소에 관한 서지사항을 넣었을 수도 있고, 연구대상본이 再版이므로 해당 초판의 인쇄소와 비교했을 때 변경이 있어 인쇄소에 관한 정보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3.5 뒤표지

뒤표지에는 가장 윗부분에 총서명인 ‘小波童話讀本’과 ‘각 권의 수’, ‘대표표제’ 등 3가지 항목을 기재했다. 그리고 표지의 대부분은 본문에 넣었던 삽화 중 하나를 흰 색으로 표현했다. 제2권의 뒤표지는 현존본의 희귀함에 따라 찾기 어려웠고, 그 외의 뒤표지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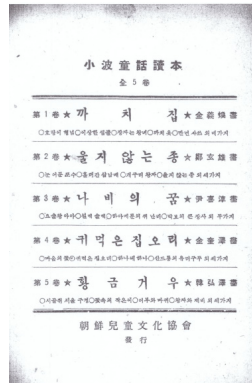
<그림 10> <소파동화독본> 각 권의 뒤표지

뒤표지 바로 앞면에는 ‘아협 어린이 노래’가 악보와 가사로 구성되어 실렸다. 이 악보는 당시 아협에서 출간한 도서와 잡지 등, 예를 들면 <아협 그림애기책>과 <주간소학생>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아협 출간 책들에서 많이 볼 수는 있지만 본 노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당시 아협을 의욕적으로 이끈 을유문화사 창립자 중 하나인 윤석중은 아동문학가로서, 동시와 동요를 많이 썼는데 ‘아협 어린이 노래’ 또한 윤석중의 영향으로 아협 창설과 발맞추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아협 어린이 노래’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제4권에 실린 ‘아협 어린이 노래’

또한 제1권에는 ‘아홉 어린이 노래’ 앞면에 나머지 4권과는 달리 <소파동화독본> 5권의 정보를 실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제1권의 <소파동화독본>에 관한 정보를 실은 면

위의 <그림 12>와 같이 본 면은 ‘小波童話讀本’에 대한 정보를 넣어 광고의 효과를 주었다. 우선은 ‘小波童話讀本’이란 총서명 아래 모두 5권으로 구성됨을 나타냈다. 또한 각 권의 대표표제와 삽화가명을 넣고 4-5개 작품의 서명을 넣어 독자들에게 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朝鮮兒童文化協會’ 발행임을 기재하였다. 이는 오직 1946년에 발행된 제1권에만 실렸는데 총 5권의 정보가 모두 실린 것이다. 비록 5권에 대한 현존본들의 발행연월일이 각각 다르지만 <소파동화독본> 5권이 동시에 출간되었다고 알려진 바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소파동화독본>의 내용 분석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으로, 방정환의 글에 삽화가 5명의 그림을 곁들였다. 해방 이후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 이러한 출판물은 매우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 방정환은 아동문학가로서 1917~1931년에 다양한 작품을 많은 지면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그 중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엄선하여 <소파동화독본>을 구성했다.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동화들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 작품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 동화들에 대해 주제별 · 문학형식별 그리고 출처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20) 정진숙(2007),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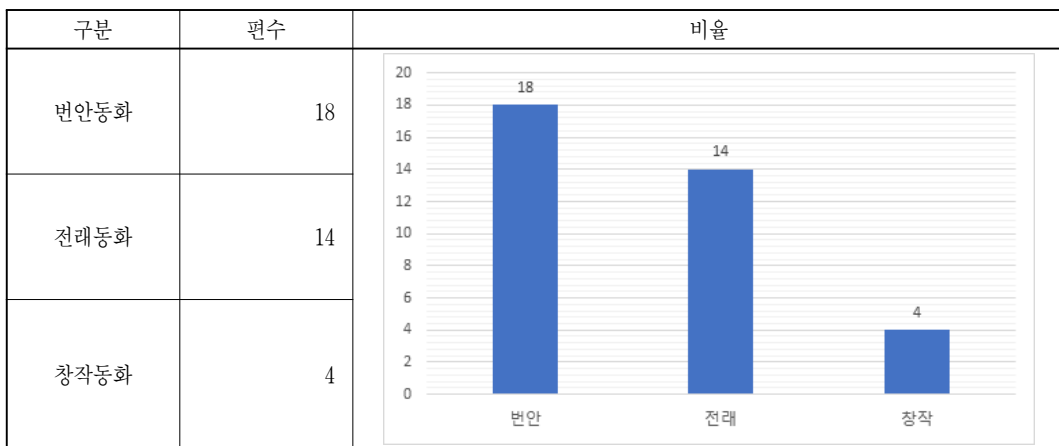
<표 5> <소파동화독본> 동화들의 주제·문학형식·출처 사항

권차	순번	제목	주제	문학형식	출처		
					연도	도서명	권호
1	1	호랑이 형님	813	전래	1926	〈어린이〉	4권1호
	2	이상한 샘물	813	전래	1927	〈어린이〉	1권7호
	3	잠자는 왕녀	84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4	까치 옷	813	전래	1925	〈어린이〉	3권6호
	5	욕심쟁이 땅장수	863	번안	1926	〈어린이〉	4권9호
	6	과거 문제	813	전래	1925	〈어린이〉	3권7호
	7	양초 귀신	813	전래	1926	〈어린이〉	4권1호
	8	아리바바와 도적	897	번안	1927	〈어린이〉	5권6-7호
	9	만년 샤쓰	813	창작	1927	〈어린이〉	5권3호
2	1	눈 어두운 포수	813	전래	1923	〈어린이〉	1권3호
	2	삼손 이야기	233	번안	1925	〈어린이〉	3권2호
	3	개구리 왕자	853	번안	1924	〈어린이〉	2권7호
	4	뿌옇뿌옇 이야기	863	번안	1925	〈어린이〉	3권9호
	5	울지 않는 종	813	전래	1926	〈어린이〉	4권6호
	6	한네레의 죽음	85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7	홀려 간 삼남매	897	번안	1926	〈어린이〉	4권9-11호
3	1	나비의 꿈	813	전래	1923	〈어린이〉	1권6호
	2	막보의 큰 장사	853	번안	1924	〈어린이〉	2권7호
	3	요술왕 아아	897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4	설희 · 술떡	813	전래	1926	〈어린이〉	4권1호
	5	하아메론의 쥐 난리	853	번안	1926	〈어린이〉	4권8호
	6	난파선	86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4	1	벚꽃 이야기	813	전래	1926	〈어린이〉	4권4호
	2	귀 먹은 집오리	813	전래	1925	〈어린이〉	3권5호
	3	마음의 꽃	82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4	산드룡의 유리 구두	86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5	공중의 귀신 신호	813	창작	1926	〈어린이〉	4권6호
	6	금시계	813	창작	1929	〈어린이〉	7권1-2호
	7	하나에 하나	813	창작	1927	〈어린이〉	5권4호
5	1	제일 짧은 동화	813	전래	1924	〈어린이〉	2권12호
	2	시골 쥐 서울 구경	813	전래	1925	〈어린이〉	3권2호
	3	삼태성	813	전래	1924	〈어린이〉	2권5호
	4	꽃 속의 작은 이	85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5	황금 거위	853	번안	1923	〈어린이〉	1권2호
	6	어부와 마귀	897	번안	1926	〈어린이〉	4권5호
	7	왕자와 제비	843	번안	1922	〈사랑의 선물〉	-

4.1 문학형식별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이 1920년대에 이미 발표했던 동화들을 모은 것으로, 제1권에는 9편, 제2권에는 7편, 제3권은 6편, 제4권과 제5권은 각각 7편 등 모두 36편의 동화를 실었다. 이들 동화는 문학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위의 <표 5>와 같이 방정환이 어린이를 위해 아동문학작가로서 옛이야기를 모아 개작한 전래동화, 외국동화를 번안·번역하여 소개한 번안 동화, 그리고 창작을 통해 펴낸 창작동화의 문학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소파동화독본> 동화들을 문학형식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소파동화독본> 문학형식별 비율



<소파동화독본>의 36편의 동화 중에 문학형식상 번안동화가 18편으로 가장 많았고, 전래동화가 14편, 창작동화가 4편이었다. 번안동화는 방정환이 아동문학작가로서 어린이를 위한 작품 중 제일 먼저 선보인 방식의 결과물이었다. 번안동화는 방정환이 단순히 외국동화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정서에 맞게’, 즉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정환은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에 따라 일본 유학 중에 접했던 외국동화 중 여러 편을 번안을 하여 발표하였다. <소파동화독본> 또한 이러한 방정환이 번안한 동화들 중에 18편을 선별하여 실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전래동화 14편 또한 방정환의 순수창작은 아니지만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한 것들이었다. 방정환은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전래동화, 번안동화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으로 펜이를 잡은 우리는 아직 창작에 급급하는 일보다도 일면으로 외국동화를 수입하여 동화의 세상을 넓혀 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기도 하다.²¹⁾

이를 통해 방정환은 외국동화를 번안하여 우리의 동화로 받아들이는 것과 옛이야기들을 개작하는 것 또한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여겼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방정환의 번안 작업은 근대문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마지막으로 <소파동화독본> 중 번안동화 및 전래동화가 아닌 창작동화는 방정환의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4편으로 번안동화 및 전래동화보다는 그 비중이 적었다. 비록 문학형식상 오로지 방정환의 창작으로 구성된 작품의 수가 적어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동화들이 방정환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만의 아동의 문학, 동화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방정환은 해방 후에 조선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학 및 동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성격으로서 외국의 동화, 일제강점기 이전의 우리 민족의 동화를 통한 창작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에 방정환의 문학관을 살펴보면 외국동화나 전래동화를 단순히 그대로 모방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라 원전에 대해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관점을 뚜렷이 견지하면서도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엿볼 수 있다. 즉,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번안동화나 전래동화 또한 전적이지는 않지만 2차적인 창작동화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4.2 출처별

<소파동화독본>의 36편의 동화는 방정환이 1920년대에 이미 발표한 동화들을 재편하여 수록한 것이었다. 동화들이 처음 발표되었던 도서, 즉 동화의 출처를 조사하여 <소파동화독본>의 실린 동화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4.2.1 도서별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의 동화들이 처음으로 발표된 도서를 정리한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소파동화독본>은 『사랑의 선물』과 잡지 <어린이>에 실린 동화를 모아 발행한 것이었다. 각 도서별 발표된 <소파동화독본> 동화들을 문학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도서별 문학형식에 따른 구분

구분	번안동화	전래동화	창작동화
『사랑의 선물』	8	0	0
잡지 <어린이>	10	14	4

21)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개벽』 4권1호, 1923년 1월.

22) 박종진,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207.

<소파동화독본>의 36편 중 8편의 번안동화는 『사랑의 선물』에 처음 실린 작품들이었다. 『사랑의 선물』은 방정환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1921년 유명한 외국 동화 10편을 번안·역하여 엮었는데 이를 1922년 7월에 개벽사에서 출판한 서적이다. 1922년에 초판을 발행을 시작으로 1927년에는 10판을 발행할 정도로 많은 판매와 인기를 얻었다. 또한 책 중에 표도 삽입되어 있고, 한글로 써져 어린이들이 좋아했다.²³⁾ 이 책은 비록 방정환의 순수 창작동화집은 아니지만 원문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고 풍토에 맞도록 다시 만들어 인기가 많았다.²⁴⁾ 또한 방정환은 외국동화의 단순한 번역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운동’ 차원에서 우리 민족에 맞게 고쳐 번안하여 억압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읽을거리인 동화를 제공과 동시에 억압된 현실 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민족 개조와 감성해방을 강화하고 내면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²⁵⁾ 이 책은 방정환의 저서 중 가장 먼저 간행되었으며, 방정환의 <소파동화독본>의 동화 중 『사랑의 선물』에서 가져온 것은 오직 번안동화 8편만 있었고, 이들 대체로 동화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선량하고 정직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았다.²⁶⁾

<소파동화독본>의 대다수인 28편은 1920년대에 발간되었던 잡지 <어린이>에 발표된 작품들로 확인되었다. 잡지 <어린이>는 1923년 개벽사에서 방정환을 중심으로 창간되었던 월간 어린이 잡지였다. 이 잡지는 거의 한글 전용으로 되었거나 국한문 혼용일 경우 한자의 괄호처리를 하여 쓰여 있어 어린이 독자의 흥미를 이끌었다. 이 잡지는 여러 부분의 교양을 망라한 종합지 성격을 가지며, 동화, 동시, 소년소설, 우화, 전기, 기행물 등의 문예물과 과학, 역사, 수학, 지식 등의 지식과 취미, 오락물, 토론 등의 교양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순수 아동지로서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아동문학계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⁷⁾ 또한 당시는 일제의 통치 하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써 언론과 출판 매체를 이용하여 민중들을 계몽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시대에 편승하여 민족적 긍지를 고양시키고 민족 감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방정환을 중심으로 잡지 <어린이>가 탄생되었다.²⁸⁾ <어린이>는 방정환에 의해서만 발행과 편집된 것은 아니었고, 방정환이 실제 공식적인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한 것은 1925년 9월호부터 1934년 2월까지였다. 방정환은 초창기에는 잡지 <어린이>에 옛이야기를 개작하거나 외국동화를 번안하여 다양한 작품을 실었다. 이에 대해 방정환은 작품이 어느 나라 잡지나 신문의 것이든지 그 작품의 유익한 내용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즉 문학적인 면보다는 교육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방정환의 가치관에 의한 것이었다.²⁹⁾ 1920년대 중반부터 방정환은 자신이 창작한 이야기들 또한 <어린이>

23)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 학지사, 1999), 61.

24)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서울: 범양출판사, 1985), 110.

25) 김미정, 임재택, “소파 방정환에 의해 재창조된 번안동화의 작품세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1권 제2호(2010. 12), 49.

26)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7), 117.

27) 이진경, “소파 방정환의 저작 및 서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8.

28) 김형태, “<어린이>지에 나타난 방정환의 아동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6.

에 다양하게 실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의 동화들은 대체로 방정환이 『사랑의 선물』과 잡지 <어린이>를 통해 1922~1929년, 즉 1920년대에 개작·번안·창작하여 발표한 작품들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4.2.2 발표연도별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의 동화들은 『사랑의 선물』과 잡지 <어린이>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을 선별하여 엮은 것으로, 각 도서에서 발표된 연도에 따라 <소파동화독본> 동화를 문학형식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발표연도별 문학형식에 따른 구분

구분	번안동화	전래동화	창작동화	비율
1922	8	0	0	
1923	1	2	0	
1924	2	2	0	
1925	2	4	0	
1926	4	5	1	
1927	1	1	2	
1929	0	0	1	
합계	18	1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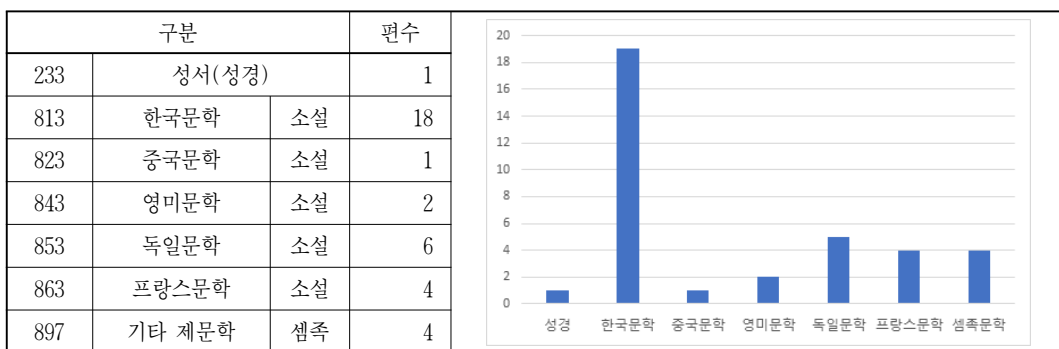
1920년대에 『사랑의 선물』과 잡지 <어린이>에 발표된 동화작품 중 36편을 선별하여 <소파동화독본>에 실렸는데, 작품의 발표 연도를 살펴보니 방정환의 아동문학 활동에 대한 특징과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 중 18편은 번안동화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1922년에 발표된 동화였다.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번안동화와 전래동화는 1923년부터 1926년에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이었으며, 창작동화는 1926년 이후 발표된 동화로 구성되었다. 시기를 구분해보면 방정환 역시 아동문학가로서 초창기에는 외국작품을 번안·역하거나 전래동화를 개작하여 발표하였고, 1925년 이후부터 다양한 창작물을 생산하였다. 마찬가지로 <소파동화독본>의 동화들 또한 방정환의 활동 흐름에 맞추어 번안동화, 전래동화 대부분은 1920년대 초반에 발표된 것이었고, 창작동화는 1926년 이후 발표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이렇듯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의 문학 활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29) 개벽사, <어린이> 제3권 제6호 (서울: 개벽사, 1925), 244.

4.3 주제별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이 1920년대에 이미 발표했던 동화들을 모은 것으로, 제1권에는 9편, 제2권에는 7편, 제3권은 6편, 제4권과 제5권은 각각 7편 등 모두 36편의 동화를 실었다. 36편의 각 동화에 해당하는 주제를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거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았다

<표 9> <소파동화독본> 주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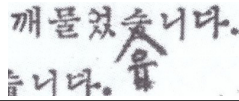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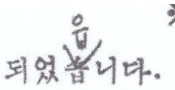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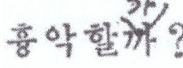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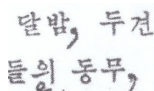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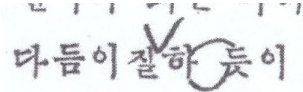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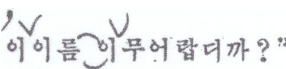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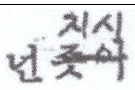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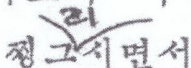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소파동화독본>의 36편의 동화를 대상으로 주제 분류한 결과, 크게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두 부류로 우선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18편씩 해당되었다. <소파동화독본>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동화 18편은 바로 KDC의 813, 즉 한국문학 소설에 해당했다. 이들 동화의 문학형식을 살펴보았더니, 대체로 방정환에 의해 개작된 전래동화와 방정환이 손수 지은 창작동화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문학이 아닌 <소파동화독본>의 나머지 18편은 외국문학으로, 모두 방정환이 외국동화를 번안하여 발표한 작품들이었다. 이들을 좀 더 세분해보면 KDC의 853인 독일문학 소설로 주제 구분할 수 있는 동화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863의 프랑스문학 소설에 해당하는 동화가 4편으로, 이들은 대부분 그림 형제나 안데르센의 작품들을 번안한 동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843의 영미문학 소설에 해당하는 동화는 2편으로 다른 국가의 문학작품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또한 KDC의 897에 해당하는 기타 제문학 샘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동화가 4편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천일야화』의 동화들로 파악되었다. 36편의 동화 중 『삼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동화는 KDC의 233에 해당하는 성서(성경)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의 이야기 중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을 동화로 번안한 것이었다. 또 다른 동화 『마음의 꽃』은 원래 방정환의 번안동화 단행본인 『사랑의 선물』에 수록된 10편의 작품 중 하나로, 이외의 9편은 그 출처를 명확히 한 반면에 이 작품은 ‘미상’으로 두고 있다. 이 동화의 출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인 衆論은 중국의 이야기라는 설이 있어 주제를 KDC의 823에 해당하는 중국문학 소설로 분류하였다.³⁰⁾ 이로써 <소파동화독본>은 방정환에 의해 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개작한 전래동화와 방정

환의 창작동화 등이 속하는 한국문학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페르시아를 비롯한 영미, 중국 등 외국의 유명한 문학작품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어린이들에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4 교정 사례

연구대상본 <소파동화독본> 중에 제4권 『귀먹은 집오리』는 1949년에 再版으로 발행된 책인데, 다른 권차의 책에서는 볼 수 없던 점이 발견되었다. 책 전체의 내용을 대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교정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된 ‘윤석중문고’의 한 책으로서, 윤석중은 을유문화의 창립자 중 하나이자 아협(아동학회)의 창단자였다. 즉, 이 책은 <소파동화독본>의 발행했던 아협의 담당자인 윤석중의 소장본이었므로 비록 해당 책에 교정의 시기와 목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지만, 연구대상이었던 제4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책에 교정된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4권 『귀먹은 집오리』 본문의 교정 사례

순번	교정사항	교정 사례	
1	~습니다 → ~읍니다		
2	~할까? → ~할가?		
3	문장부호 교정		
4	띄어쓰기 교정		
5	맞춤법 교정		
6	脫字 교정		

30)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김경희, “방정환의 『마음의 꽃』에 나타난 ‘마음으로 피우는 꽃’의 의미,” 『방정환연구』 1권(2019. 3), 100.

제4권의 본문에 교정되어진 사례는 위의 <표 10>과 같이 대략 6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교정 사례는 ‘~습니다’를 ‘~읍니다’로 수정한 형태였다. 이와 같은 교정 형태는 연구대상본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해놓은 상태였다. 두 번째로 비중이 많았던 교정 사례는 ‘~까?’를 ‘~가?’로 고친 것이었다. 이렇게 수정된 사례 또한 책 전반적으로 교정자가 동일한 형태로 수정하였음을 확인했다. 세 번째 교정 사례로는 문장부호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을 채워놓는 형태가 많았다. 특히 큰 따옴표, 쉼표 등이 빠진 곳에 대해 이를 수정한 부분이 많은 편이었다. 네 번째 사례로는 띄어쓰기에 대한 교정이 있었다. 간격을 띄어야 하는데 붙여 썼거나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것 등 두 가지 형태의 오류에 대한 교정이 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맞춤법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끄러’를 ‘끓여’, ‘넌죽이’를 ‘넌지시’, ‘쌍둥이’를 ‘쌍둥이’로 수정하는 등의 교정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탈자 교정이 행해졌다. 이 경우는 딱 한 군데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쨍그시면서’ 중간에 ‘리’를 덧붙여 ‘쨍그리시면서’로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

제4권은 다른 권차의 책과는 달리 ‘재판’으로 발행된 책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발행연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권차에서도 제4권의 교정 전의 방식으로 동화의 문장이 인쇄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맞춤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현재 맞춤법의 토대가 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놓았고, 이 통일안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계속적인 개정을 해왔다. 1940년 제2차 개정을 거치며 규칙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변경되었다.³¹⁾ 이 통일안의 규칙과 제4권 『귀먹은 집오리』 교정 내용의 몇 가지를 비교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제4권의 교정 사례 비교

구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내용	제4권 교정 사례
1933년	원안	‘ㅁ’ 뒤와 ‘ㅅ’ 뒤에는 ‘-읍니다’를 씀.	되 ^읍 습니다.
		‘ㄹ고, ㄹ가’로 표기하기로 함.	흥 ^가 악할까?
1940년	2차 개정	문장 부호 50여 개의 이름과 사용법을 상세히 규정함.	달 ^밤 , 두 ^견 들 ^원 , 동 ^무 ,
1946년	3차 개정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많이 고침.	다 ^들 이 잘 ^하 듯 ^이
1957년	4차 개정	‘ㅂ니까, 리까, ㄹ까, ㄹ꼬’ 등 물음꼴 씨끝을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함. 예시) ~할가? → ~할까?	X

31) 리의도,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301(2013. 9), 174.

<소파동화독본>은 해방 후에 발행되었으나 1920년대 방정환이 발표했던 원문 그대로의 모습으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4권의 경우는 소장자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교정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위의 <표 11>의 굵은 글씨로 표기된 것에 의거하면 제4권에서는 1933년 ‘ㄹ고, ㄹ까’로 표기한다는 규칙에 따라 ‘~할가?’로 모두 교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칙이 1957년 4차 개정 때는 다시 ‘ㄴ니까, 리까, ㄹ까, ㄹ꼬’ 등 물음꼴 씨끝을 소리는 대로 기재한다는 변경되었으나, 이전의 규칙인 제4권 『귀먹은 집오리』는 1933년의 규칙대로 교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4권에 행해진 교정은 책의 발행이 있던 1949년 이후부터 1957년 이전 사이에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해방기인 1946년부터 1949년에 출간된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를 대상으로 발행과 현전본의 현황, 체제 및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파동화독본>은 해방 직후 설립된 을유문화사의 병설 단체인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에서 발간한 도서였다. 아협은 아동도서의 출판을 담당하였고, ‘시리즈물’을 많이 출간하였다. 그 중에 <소파동화독본> 시리즈는 소파 방정환이 1920년대에 이미 발표한 작품 36편을 모아 A5판형 70면 안팎의 반양장본의 형태로 전5권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마다 삽화가를 달리한 선구적인 출판기획과 해방 최초로 출간된 ‘아동물 개인 전집’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둘째, <소파동화독본> 시리즈의 현전본 현황 조사 결과, 현전하는 도서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제1권 『까치웃』, 제3권 『나비의 꿈』과 제4권 『귀먹은 집오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제2권 『울지 않는 중』은 개인 소장, 제5권 『황금거위』는 을유문화사에 소장되었다. 현전본의 발행연도는 제1권 1946년, 제2권과 제3권은 1947년, 제5권은 1948년, 제4권은 再版이었는데 1949년으로 각기 달랐다.

셋째, <소파동화독본>의 체제는 앞표지-목차 및 속지-본문-판권기-뒤표지로 구성되었다. 앞표지는 아협의 상징문양과 ‘小波童話讀本’의 총서명 아래 권차와 대표표제를 큰 활자로 표기했다. 그 아래에 대표표제와 관련된 삽화를 넣고, 위은 곳인 ‘兒協童話研究所 編’과 발행소인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을 기재했다. 앞표지 바로 뒷면에는 <소파동화독본>의 저자인 방정환의 초상과 간략한 소개 및 ‘소파 선생의 당부’를 담았다.

목차 및 속지 중 목차에서는 ‘소파동화독본’ 아래에 권차 표시를 하였고, 각 권의 단편동화의 제목과 해당 페이지수를 기재했다. 속지에는 각 권의 동화 속 삽화를 그린 화가의 이름을 소개했다.

삽화가로는 제1권 김의환, 제2권 정현웅, 제3권 윤희순, 제4권 김규택, 제5권 한홍택으로 알려졌다. 본문은 방정환의 저작 여러편을 모아 간행했는데, 제1권은 9편, 제2권 7편, 제3권 6편, 제4권 7편, 제5권 7편의 동화를 모아 엮었다. 수록된 동화는 글과 함께 어린이의 이해와 흥미를 돋으려는 목적으로 삽화를 넣었다.

판권기는 총서명과 각 권차와 권제명일, 발행연월일을 기재했고, 저작자에 관한 정보도 들어있었다. 저작자는 5권 모두 방정환의 아들, 方云容으로 방정환이 별세한 후 저작권자로서 기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발행소와 총판매소, 을유문화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 임시정가가 기재되었다. 제1권의 판권기에는 다른 권차의 것과 달리 가장 위에 마패 모양의 印紙와 방용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뒤표지 가장 윗부분에는 총서명, 권차와 대표표제의 항목이 기재되었고, 뒤표지 대부분에는 본문에 나왔던 삽화 중 하나를 흰색 선으로 표현했다. 뒤표지 바로 앞면에는 ‘아홉 어린이 노래’의 악보와 가사를 실었다. 또한 제1권에는 권차별 <소파동화독본>의 정보를 넣은 광고면이 실렸는데, 이를 통해 비록 5권 헌전본의 발행연월일이 달랐으나 <소파동화독본> 5권이 1946년에 동시에 출간되었다고 알려진 바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소파동화독본>의 내용은 방정환의 작품 36편에 삽화가 5명의 그림을 곁들인 것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학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옛이야기를 개작한 전래동화 14편, 외국동화를 번안하여 소개한 번안동화 18편, 창작동화 4편으로 구성되었다. 평소 방정환은 번안동화 및 전래동화는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자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여겼는데 <소파동화독본>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수렴됨을 알 수 있었다.

<소파동화독본> 36편의 동화는 방정환이 1920년대에 이미 발표한 작품들로, 이들의 출처도서와 발표연도를 조사한 결과, 1922년 『사랑의 선물』에서 8편, 1923~29년에 발표된 잡지 <어린이>에서 26편이 실렸다. 번안동화와 전래동화 대부분은 1920년대 초반에 발표된 것이고, 창작동화는 1926년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방정환의 문학 활동 및 문학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소파동화독본>에 실린 36편의 동화의 주제는 813 한국문학 소설이 18편이었는데, 대부분 방정환에 의해 개작된 전래동화와 방정환의 창작동화가 이에 속했다. 나머지 18편은 외국문학에 해당되었는데, 853 독일문학 소설이 6편, 863 프랑스문학 소설이 4편, 897 기타 제문학은 4편이었다. 그 외에 843 영미문학 소설이 2편, 823 중국문학 소설 및 233 성서(성경)이 각각 1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소파동화독본>은 한국문학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문학작품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소파동화독본> 연구대상본 중 제4권에는 교정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습니다 → 읍니다’, ‘~할까? → ~할가?’, 문장부호 교정, 띄어쓰기 교정, 맞춤법 교정, 脫字 교정 등 6가지 형태가 교정되었다. 이를 조선어학회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개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1933년 원안부터 1940년 2차 및 1946년 3차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었으나 1957년 4차 개정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교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발행년인 1949년에서 4차 개정이 있었던 1957년 이전에 이 도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에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시도된 아동을 위한 출판물이자 어린이문화 운동의 선구자인 방정환의 작품을 엮은 아협의 <소파동화독본>에 대한 체제 및 내용 분석을 통해 해방기 출판물 및 방정환 등 아동문학의 특징을 꼽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정환의 작품, 아동문학 및 해방기 출판물과 우리나라 출판사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근대 서지학 및 출판학, 근대 아동문학 및 우리나라 맞춤법에 관한 국어사와 연관된 학문 및 관련 연구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개벽사. 『어린이』 3권6호(1925. 6).
- 김경희. “방정환의 『마음의 꽃』에 나타난 ‘마음으로 피우는 꽃’의 의미.” 『방정환연구』 1권(2019. 3). 99-116.
- 김미정, 임재택. “소파 방정환에 의해 재창조된 변안동화의 작품세계 - 『사랑의 선물』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1권 제2호(2010. 12). 47-66.
- 김형태. “<어린이>지에 나타난 방정환의 아동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리의도.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301권(2013. 9). 143-218.
- 方云容. 『까치웃』. 서울: 아협, 1946.
- 方云容. 『울지 않는 종』. 서울: 아협, 1947.
- 方云容. 『나비의 꿈』. 서울: 아협, 1947.
- 方云容. 『귀먹은 집오리』. 서울: 아협, 1949.
- 方云容. 『황금거위』. 서울: 아협, 1948.
- 박종진.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1)(2017): 203-233.
-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개벽』 4권1호(1923. 1).
-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 학지사, 1999.
-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2009.
-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서울: 범양출판사, 1985.

-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오십년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7.
- 이진경. “소파 방정환의 저작 및 서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장정희. “소파 방정환의 장르 구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 정경자. “소파 방정환 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정지식, 오영식. 『틀을 돌파하는 미술: 정현웅 미술작품집』. 서울: 소명출판, 2015.
- 정진숙. 『출판인 정진숙』. 서울: 을유문화사, 2007.
- 진나영. “해방기 출간 <아협 그림얘기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9권 제4호 (2018. 12). 405-427.
-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산업사』. 경기: 한올아카데미, 2012.

을유문화사 홈페이지 <<http://www.eulyoo.co.kr>> [접속일 2019.9.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속일 2019.10.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Gyeong-sig. 1999. *Bang Jung-hwan's Children's Education Movement and Thoughts*. Seoul: Hagjisa.
- Bang, Jung-Hwan. 1923. “About a new pioneering fairy tale.” *GaeByeo*, 4(1).
- Bang, Unyong. 1946. *The cloth of magpie*. Seoul: Ahyeop.
- Bang, Unyong. 1947. *A bell that does not cry*. Seoul: Ahyeop.
- Bang, Unyong. 1947. *The dream of butterfly*. Seoul: Ahyeop.
- Bang, Unyong. 1948. *Golden goose*. Seoul: Ahyeop.
- Bang, Unyong. 1949. *Deaf duck*. Seoul: Ahyeop.
- Eulyoo Publishing. [online]. [cited 2019.9.21.]. <<http://www.eulyoo.co.kr>>.
- Eulyoo Publishing. 1997. *The 50 years of Eulyoo Publishing*. Seoul: Eulyoo Publishing.
- GaeByeoksa. 1925. *Children*, 3(6).
- Jang, Jeong-Hee. 2009. *A study on genre classification of Bang Jung-Hwa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Jeong, Gyeong-ja. 1997. *Literature of Bang Jung Hwan's Study*.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Jeong, Jinsuk. 2007. *Publisher Jeong Jinsuk*. Seoul: Eulyoo Publishing.

- Jin, Nayoung. 2018. "A Study on the <Ahyeop Picture Storybook> published in the Liberation Perio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405-427.
- Jung, Jiseok. 2015. *Jung Hyun-woong Art Collection*. Seoul: So Myeong Publication.
- Kim, Hyeongtae. 2002. *Study of the philosophy of children education represented in the magazine, children*.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Kyunghye. 2019. "A Comparative Study on 'Flower of Heart' by Bang Jung-Hwan and 'Flower Competition' Story in Korean and Chinese Textbooks." *Research on BangJungHwan*, 1: 99-116.
- Kim, Mijeong & Lim, Jeataek. 2010. "The world of Fairy tales adaptation was recreated By Bang Jeong-whan: focused on 『Sa-lang-ui-seon-mul』."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1(2): 47-66.
- Korean Folk Culture Encyclopedia. [online]. [cited 2019.10.07.]. <<https://encykorea.aks.ac.kr>>.
- Korean Publishing Society. 2012. *A History of Korean Publishing Industry*. Gyeong-gi: Hanul Academy.
- Lee, Jinkyung. 2008. *A study on the works of SoPa Bang, Jung-Hwan and their bibliography*. M.A.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Uido. 2013. "Changes of Korean Language Notation." *Hangeul*, 301: 143-218.
- Oh, Yeongsik. 2009. *The Catalog of print books in liberation period*. Seoul: So Myeong Publication.
- Park, Jongjin. 2017. "A study of Bang Jeong-Hwan's translated work: Focused on Deaf duck and Fireworks."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8(1): 203-233.
- Yeom, Hui-gyeong. 2007. *A Study of So-Pa Bang Jeong-hwan*. PhD.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Yoon, Suk-Joong. 1985. *Children and lifelong*. Seoul: Beomyang Publishing.